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⑩ '卍字'의 비밀



▶ 한줄 요약
미국 보스톤미술관 소장 고려불화 〈원각경변상도〉의 만자(卍字)는 뒤집힌 모양이다. 이는 고려불화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만자는 차크라의 도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 그 방향은 크게 상관없다.

卍字, 삼라만물 생성 원리

고려불화 대논란! '卍字 방향'

고려불화를 논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만자(卍字)의 방향' 이다. 만자의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만자가 잘못 그려졌다", "역(逆) 만자이다", "거울에 비친 듯 뒤집혔다" 등 격렬한 토론이 오간다. 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걸까? 보시다시피 〈원각경변상도〉의 상단 한 가운데 장엄 문양(그림1)을 보면, 그 핵심에 '만자'가 있다. 만자에서는 '깨달음의 빛' 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것을 여섯 겹 빛깔의 둥근 광배로 표현했다. 이것을 '육색 광명' 이라고 한다.

'육색 광명' 이란, 초기경전(니까야)에 의거하면, 부처님께서 '12연기' 를 설하실 때 뿜어져 나왔던 찬란한 빛이다. 존재의 실체인 12연기, 그 조건(빳타나)들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빤야)의 빛' 이다. 둥근 광배 주변으로는 서기(瑞氣)가 다시 소용돌이치며 양 갈래로 퍼져나가는데, 이 서기는 애초에 중심 부처님의 머리 또는 육계에서 오롯하게 뿜어져 올라온 것이다.(지난 연재 그림2 참조)

두 갈래 서기가 서로 회전하면서 꽈배기처럼 용솟음하더니, 만자의 결정으로 실체를 드러내며 중첩되고, 다시 그 만자에서는 온갖 장엄의 꽃구름 서기가 피어난다.

'만자= 부처님' 동격로 묘사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둥근 광배의 표현이다. 중심 부처님의 몸체 주변에도, 만자의 주변과 동일한, '육색 광명의 광배' 가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육색 광배의 한 가운데에, 부처님도 있고 만자도 있다. 부처님의 몸체에서도, 또 만자의 몸체에서도 동일한 '육색 광명' 이 뿜어져 나왔다는 것은, 이들(부처님과 만자)이 '동격(同格)'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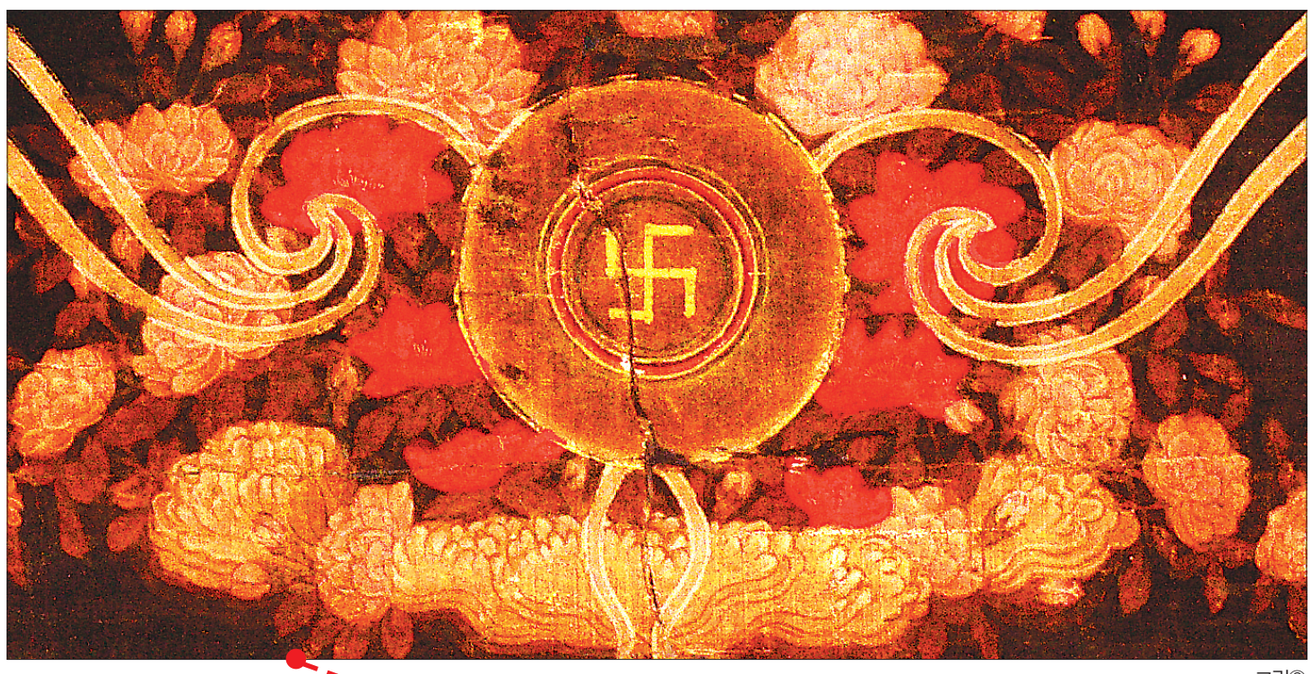
부처님을 '기호' 로 표현할 때는 '여의주' 또는 '만자' 로 표현하는데, '여의주' 로 표현할 때는 '법신(法身)' 을 의미하고, '만자' 로 표현할 때는 '보신(報身)' 을 의미한다. 법신은 여여불변 상주하는 '물아일체의 마음' 이고, 보신은 그것이 '장엄하는 마음' 이기 때문이다. 그 장엄하는 모습의 기본은 '빛의 소용돌이' 즉 '만자가 돌아가며 모습' 으로 표현된다.

다시 고려불화의 일대 논란, 만자의 방향 문제로 돌아가 보자. 〈원각경변상도〉에서 뿐만 아니라, 고려불화의 주된 주제인 아미타부처님 · 비로자나부처님 등의 가슴 한 가운데에는 만자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고려불화와 매우 유사한 중국 남송 및 원 나라 불화에는 가슴에 만자가 없다. 그래서 만자의 유무(有無)는 고려불화를 감별하는 주된 트레이드마크(대표 상징)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고려불화에 등장하는 많은 만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른쪽 방향(시계 방향)' 으로 그려져 있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 입력 프로그램에서 '만자' 를 입력하면, 이런 한자 '卍字' 가 뜨기에, 우리는 당연히 만자가 '왼쪽 방향(반시계 방향)' 으로 꺽쇠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지불식간, '정식' 만자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고려불화 속 무수한 만자들의 공통 방향은 오른쪽이므로, 오히려 오른쪽 꺽쇠가 전통 만자의 전형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자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동적 '만자' 방향, 그 원리?

〈원각경변상도〉의 '만자 표현' 은 눈에 가장 잘 띄는 정중앙 상단에 묘사되었다. 부처님 정수리 바로 윗자리 화면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만큼, 그 상징성이 크다.



그림②



그림①

〈원각경변상도〉 뒤집힌 卍字
대부분의 고려불화서 발견돼
報身 의미 卍, 부처님과 동격
차크라에너지 회전 표현키도
왼 · 오른쪽 방향성 상관없어



그림③

그림①. 미국 보스톤미술관에 소장된 고려불화 〈원각경변상도〉의 모습.

그림②. 노사나불 정수리 위의 '만자(卍字)'로 卍이 뒤집혀 있다. 이는 고려불화에서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③. 다양한 만자(卍字) 문양들. 만(卍)은 세계 종교에서 사용되는 문양이다.

본 작품 이외의 여타 고려불화에도 만자가 나타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로 아미타부처님 또는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슴에 새겨진 경우가 많다. '바탕자리' 또는 '깨달음의 자리' 에서 '서기가 돌아가는 모습' 또는 '보신이 작용하는 모습' 을 문자화한 것이 '만자(卍字)' 이다. 보통 부처님 가슴에 묘사된 만자는, 제5차크라(가슴 차크라)가 열린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가슴 차크라가 열려, '바탕의 에너지' 또는 '우주의 에너지' 와 소통된 모습이다. 본 작품처럼 부처님 정수리 위에 그려진 것은, 제7차크라(백회 차크라)라 열려 그것이 '장엄에게 작용'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만자처럼 돌아가는 '십자형의 소용돌이' 문양은, 단전에 집중을 할 때나 또는 차크라가 열릴 때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십자 모양의 찬란한 빛이 캄캄하고 어두운 심연을 바탕으로 찬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십자 모양의 빛 에너지는 회전하기 시작한다. 평면인 2차원에서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다가, 청정에너지가 매우 활발할 경우, 3차원의 공간을 형성하며 돌기도 한다. 조건에 따라, 작게 돌기도 하고 광활한 우주의 블랙홀처럼 크게 돌기도 한다. 빠르게 돌기도 하고, 매우 천천히 돌기도 한다. 그 움직임과 형상이 변화무쌍하다.

하지만, 그 기본 단위는 똑같다. 처음 시작은 '십자 문양' 의 빛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 '돈다는 것!' 그렇다면,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방향은 마음의 문(意門)에서 내가 주는 의식의 방향에 따라, 좌로 돌기도 하고 또 우로 돌기도 한다. 그러니 방향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이다.

'빛의 바람개비' '卍'자로 표현

우리가 수행을 해서 자신을 맑혀 나아가면, 다시 청정한 에너지와 합일하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로 그 때 '바탕의 문' 또는 '우주의 문' 이 열리는 모습을 기호화 한 것이 만자이다. 십자로 열리며 찬연하게 돌아가는 빛 에너지, 그것을 본래 형상의 근거하여 상형문자(象形文字)로 나타내면 '만자(卍字)' 가 된다. 만자는 그 움직임이 변화무쌍하기에 만자의 표현 역시 매우 다채롭다.

만자는 사마타(집중) 수행의 결과물이기에,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힌두교 사원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카톨릭 사원 등지에서도 다양한 만자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3) 또 원시종교의 표현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확인되는 문양이다. 이들 각 종교에서는 신(神) 또는 신성성과 합일될 때, 그 문이 열리는 모습으로 인식하기에, 만자는 세계 종교의 '공통 문양'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찰 예불에서 거의 필수로 염송되는 의상조사 '법성게' 는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라는 그림의 바탕 위에 쓰여진 것이다. 법계도라는 것은, 법계(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도해한 것, 그림으로 그린 것이란 뜻이다.

법계도의 유래는 이렇다. 의상대사가 중국 지상사 지엄대사 문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말해보라고 하자, 대사는 그 증표로 만자(卍字)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만자의 네 꼭지를 연달아 빙빙 돌린다. 만자의 네 꼭지가 소용돌이 문양으로 거침없이 돌아가는 것을 그리고, 그 돌아가는 선들의 사이에다가 자신의 오도송(悟道頌) '법성게' 를 써넣는다. "법성원융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일중일체다중일 일즉일체다즉일…" 본인이 체험한 것을 먼저 만자의 '그림' 으로 나타내고, 다음으로 '문자' 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화엄일승법계도〉이다.

만자의 원리를 정리하면, '찬란한 빛의 바람개비가 돌면서 나타난다' 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모습의 소용돌이로 전개되지만, 기본 패턴은 '원형으로 돈다' 이다.

왜 원형으로 도는가? 여기서 '조건의 원리' 가 적용된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는 것' 을 '조건 지어진다' 라고 하고, 이것을 불교용어로 '연기(緣起)' 라고 한다. '연기' 는 불교가 말하는 '모든 존재가 생겨나는 기본 원리' 이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면, 그 원심력으로 돌기 시작한다. 돌면서 파장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소용돌이의 파장' 속에서 모든 만물은 태어난다. 삼라만상 생성 원리의 바탕에는 '만자' 가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불성평등 자유의지의 천부적 권리 우리불자들이 지켜 나갑시다.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원로원장 효덕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예술문화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 총무부장 법연 010-7122-1369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약사사추모관운영) 희망 다문화 협동조합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화 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1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